

Global Citizenship in Korean New Religions: Focusing on Won Buddhism

Seonghun Jo*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s to examine global citizenship in Won Buddhism.

CONTENTS To accomplish this, the paper investigates the origins of global citizenship by focusing on early Won Buddhist thought. First, as a feature of Won Buddhist thought, the study examines the simple doctrines and practical methods suggested by Sotaesan, the Founding Master of Won Buddhism, and identifies the doctrinal basis pertaining to global citizenship. This enables us to comprehend Won Buddhism's global citizenship by examining the concepts of Public Spirit, The Public Spirited, Venerating the Public Spirited, and Selfless Service to the Public.

RESULTS The study's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entral keyword of Won Buddhism's thought, Public Spirit, can be viewed as the original intent of all the buddhas and sages, symbolizing the global citizenship of Won Buddhism. Second, in Won-Buddhism, those who realize the Public Spirit are The Public Spirited and can be recognized as global citizens. Third, Venerating the Public Spirited can be said to be th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Won Buddhism.

KEY WORDS Won Buddhism, Global Citizens, Global Citizenship, The Public Spirited, Public Spirit, Venerating the Public Spirited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0S1A6A3A01109513).

* **Corresponding to** Seonghun Jo (Professor, The Institute of Mind Humanities, Wonkwang University)

E-mail : deoksang@yahoo.com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한국 신종교에 나타난 세계시민 의식: 원불교 사상을 중심으로

조성훈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원불교 사상에서 세계시민 의식을 찾아보는 데 있다.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원불교 초기 사상을 중심으로 세계시민 의식의 단초를 찾는다. 먼저 원불교의 창시자인 소태산이 제시한 사상의 특징으로 ‘간단한 교리’와 ‘편리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 중 세계시민 의식과 관련되는 교리적 근거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원불교적 세계시민 의식을 이해할 수 있는 주요 개념으로 공익심(公益心), 공도자(公道者), 공도자 숭배(公道者 崇拜), 무아봉공(無我奉公)을 살펴본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불교 사상의 핵심 키워드인 ‘공익심’은 ‘제불제성의 본의’로서 원불교의 세계시민 의식을 나타낸다. 둘째, 공익심을 실현하는 사람을 ‘공도자’라고 부르며 이는 원불교에서 주장하는 ‘세계시민’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공도자 숭배는 원불교의 정신을 실현하는 세계시민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원불교, 세계시민, 세계시민의식, 공도자, 공익심, 무아봉공

I. 서 론

원불교에서는 1970년대부터 ‘세계 평화 3대 제언’을 제시했고, 그 첫 번째 제언이 종교 간의 대화로 화합하고 함께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연합체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이 합심 협력하여 국제연합 기구에 대등한 종교연합 기구를 창설하여 인류의 영과 육의 무지·빈곤·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을 갖자”(Daesanjongsabeobeo Pyeonsuwuwonhoe, 2014: 338)라는 메시지와 함께 세계평화를 만들어가는 ‘종교연합(United Religions)’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종교 간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또한 원불교에서는 2022년 10월 8~9일 “종교와 문명: 모두를 위한 사회정의와 치유(Religions and Civilizations: Social Justice and Healing for All)”라는 주제로 ‘2022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Interfaith Coalition Conference for Global Citizens 2022)’를 개최했다. 이번이 3회째로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종교 간의 대화를 진행했다.

사실 종교는 오랜 세월 동안 개인의 구원을 비롯하여 지상의 낙원이 이루어지길 바라왔다. 종교마다 고유의 사상을 통해 조금씩은 다른 모습을 보였더라도, 사람과 세상에 유익을 주고자 하는 마음은 서로 같을 것이다. 근대한국에서 시작된 종교들 역시 ‘개벽(開闢)’의 깃발을 높이 들고 개인의 영적 성숙과 낙원 세상 건설이라는 비전을 공유해왔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고 서로의 이해는 늘 충돌하며 누군가는 강자로 누군가는 약자로 대립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수많은 갈등이 생긴다(Jo & Ko, 2018: 2-6). 특히 최근의 시대적 갈등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관여되어 발생하고 있고, 기후위기처럼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세계가 하나의 울타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시민(Global Citizens)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지고 있고, 세계시민 의식(Global Citizenship)을 키워나가는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少太山 朴重彬 大宗師, 1891-1943; 이하 ‘소태산’)는 이 시대를 물질개벽의 시대로 진단하고 정신개벽을 통해 물질을 선용하는 ‘원만한 종교의 신자’(Wonbulgyo Jeonghwasa, 1977: 22)가 되길 염원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계시민 의식’의 바탕이 되는 원불교 사상을 찾아보고자 한다. 특히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여 세계시민 의식을 관통하는 원불교의 핵심가치로서 ‘공(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원불교 창립부터 현재까지를 잇는 역사 속에서 ‘공(公)’의 가치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고찰하는 가운데 밝혀질 것이다. 이를 위해 원불교의 초기교서와 초기간행물, 현재 원불교 공식 교서인 『원불교전서』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원불교에서 제시하는 ‘세계시민 의식’을 실제 원불교 초기 교단의 활동에서 확인해 볼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원불교 사상에서 강조하는 ‘공(公)’의 가치를 제불제성의 본의인 ‘공익심’에서 찾아보고, 공익심을 실천하는 ‘무아봉공’의 삶과 무아봉공의 삶을 존중하는 ‘공도자 숭배’의 사상으로 전개할 것이다.

II. 원불교 개교와 개벽사상

1. 소태산의 대각과 시대인식

1) 대각과 일원상의 천명

소태산은 1891년 전남 영광에서 태어났다. 7살 즈음부터 “저 하늘은 얼마나 높고 클까?”, “바람과 구름은 어떻게 생길까?”와 같은 의심을 시작으로 점차 부모님이나 형제와 인연된 것이 궁금해지는 등 의심의 대상이 넓어지고 그 깊이 역시 깊어져만 갔다. 산신이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년간 산에 올라 기도를 드리고, 세상 이치를 다 아는 도사가 있다는 이야기에 도사를 찾아 다시 수년간을 헤맸다. 하지만 산신도 도사도 만나지 못했고 결국 “이 일을 장차 어찌할꼬?”라는 질문과 함께 이제는 홀로 수행했다. 그리고 1916년 4월 28일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Wonbulgyo Jeonghwasa, 1977: 1032-1040).

그는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두렷한 기틀을 지었도다.”(Wonbulgyo Jeonghwasa, 1977: 95)라고 밝혔다. 이때 언급된 ‘한(一) 두렷한(圓) 기틀(相)’인 일원상은 1935년 4월 28일 전북 익산의 원불교 중앙총부(당시 ‘불법연구회’) 대각전(大覺殿)에 봉안되었다. 이후 원불교 교당마다 교도의 집에 차차 일원상이 봉안되었다. 종교학자 돈 베이커(Donald Baker)는 이렇게 설명했다.

원불교의 교당에서 부처나 보살의 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대신에 (중략)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고 같은 근본 성품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되새기게 하기 위해 교당의 맨 앞 쪽 벽에는 둥근 원이 그려져 있다(Baker, Park trans., 2012: 196-197).

소태산은 약 20년의 구도 끝에 대각을 이루었고, 다시 약 20년이 지나 그의 깨달음의 내역인 ‘일원상’은 원불교의 종교적 상징으로 공식적으로 봉안되어 이제는 원불교의 모든 교도가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받들게 되었다.

2) 물질개벽과 정신개벽

소태산은 “청명한 바람 불고 달이 떠오르니 모든 존재가 그대로 밝게 드러나도다(淸風月上時 萬像自然明)”(Wonbulgyo Jeonghwasa, 1977: 258)라며 깨달음의 심경을 이야기했다. 여기에서 그가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깨달음의 빛으로 당시의 시국을 비추어보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Wonbulgyo Jeonghwasa, 1977: 95-96)라는 강령을 제시했다.

현 시대는 과학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물질의 세력이 더욱 융성해지는 시대이다. 스마트

폰은 이 시대의 과학 문명이 발달한 정도를 증명해준다. 이것만 보아도 물질이 개벽되는 세계임을 알 수 있고, 우리는 물질개벽의 힘으로 다양한 편리와 풍요를 맛보고 있다. 하지만 소태산은 물질문명이 지닌 문제점도 함께 인식했다.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 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즉 물질개벽의 현상은 인간의 욕심을 끝없이 증폭시키고 다시 현실을 무한경쟁의 갈등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부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Jang, 2015: 69). 그래서 소태산은 물질개벽의 시대에 인류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신개벽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써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 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Wonbulgyo Jeonghwasa, 1977: 21).

이에 소태산은 정신개벽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깨달음의 내역인 ‘일원상의 진리’를 근거하여 원불교의 사상을 제시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제불제성의 심인인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천지·부모·동포·법물의 사온과 수양·연구·취사의 삼학으로써 신앙과 수행의 강령을 정하였으며,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니라(Wonbulgyo Jeonghwasa, 1977: 22).

이로써 원불교는 ‘일원상’을 종지로 하고 이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 인생의 요도인 사온사요와 공부의 요도인 삼학팔조를 실천하는 교리 체계를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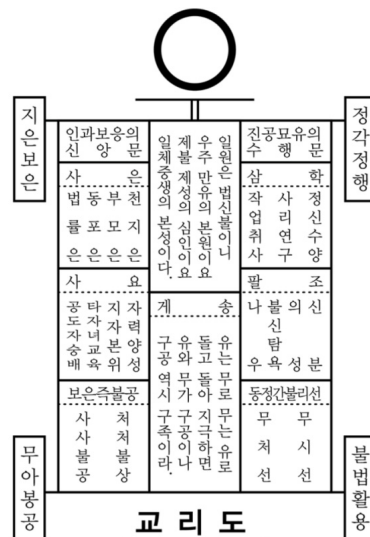
2. 정신개벽의 로드맵

소태산은 ‘간단한 교리와 편리한 방법’(Wonbulgyo Jeonghwasa, 1977: 156)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수양연구요론』(1927), 『육대요령』(1932), 『삼대요령』(1934) 등을 제시했고, 『불교정전』(1943)을 완성한 후 열반에 들었다(Ko, 2004: 122-133). 『불교정전』은 현재 『정전』(1962)으로 계승되었고 원불교에서는 『정전』을 원불교 교리의 근원을 밝힌 원경(元經)(Wonbulgyo Jeonghwasa,

1977: 839)으로 여긴다. 따라서 『정전』은 그 전체가 소태산이 제시한 ‘간단한 교리’와 ‘편리한 방법’을 집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논자는 『정전』의 ‘교리도’와 ‘일상수행의 요법’을 중심으로 ‘간단한 교리’와 ‘편리한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교리도

교리도는 원불교의 교리 체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해(圖解)이다. 소태산은 사람들에게 교리도를 보여주며 “내 교법의 진수가 모두 여기에 들어 있건마는 나의 참 뜻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꼬”(Wonbulgyo Jeonghwasa, 1977: 402-403)라고 말했다. 이러한 교리도는 『육대요령』(1932)의 교리도, 해방 전 『불교정전』(1943)의 교리도, 해방 후 『불교정전』(1945)의 교리도, 『원불교 교전』(1962)의 교리도까지 네 단계를 거쳐 정착되었다(Ko, 2012: 279-290; Ryu, 2018: 94).



[그림 1] 원불교의 교리도

[Figure 1] The Doctrinal Chart of Won Buddhism

그럼 현재 원불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리도([그림 1])를 중심으로 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거북 모양인 교리도는 머리, 몸통, 다리의 세 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머리에는 ‘○’이 그려져 있다. 이는 깨달음의 본질인 ‘일원상’을 상징으로 드러낸 것이다. 둘째, 사각 몸통에는 중앙 기둥에 일원상의 진리를 요약하고 그 아래 계승을 제시한 후 좌우 기둥으로 신앙문과 수행문을 두었다. 특히 신앙과 수행의 두 문을 통해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와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를 밝히고 각각을 ‘보은즉불공’의 ‘처처불상 사사불공’과 ‘동정간불리선’의 ‘무시선 무

처선'으로 귀결시켰다. 셋째, 네 개의 다리는 원불교가 지향하는 정각정행·지은보은·불법활용·무아봉공의 '사대강령'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교리의 공간적 배치는 원불교의 교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일상수행의 요법

‘일상수행의 요법’은 총 아홉 조항으로 되어 있다. 원불교의 정기간행물인 『회보』 44호(1938년 5월)에서 ‘본회의 목적’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등장하였고, 『회보』 52호(1939년 2월)에서 ‘본회의 교강’으로 변경되었다. 『회보』에서 언급된 ‘본회’는 ‘불법연구회’를 말하며, 『불법연구회 근행법』(1939년 11월)에 와서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언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상수행의 요법

1. 심지(心地)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마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써 자성(自性)의 정(定)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마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써 자성의 혜(慧)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림이 없건마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림을 없게 하는 것으로써 자성의 계(戒)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외와 성으로써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Wonbulgyo, 1977:54)

원불교에서는 일상수행의 요법을 아침저녁으로 외도록 한다. 그래서 새벽 좌선을 시작하며 일상수행의 요법을 외우고(Kyojeongwon Kyohwabu, 2012: 335), 법회에서도 법어봉독 후 일상수행의 요법을 외운다(Ko & Jang, 2020: 131-135). 이처럼 일상수행의 요법을 외우는 이유는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니, 대체로는 날로 한 번씩 대조하고 세밀히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잘 살피라는 것”(Wonbulgyo Jeonghwasu, 1977: 140)이다.

1~4조는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를 담고 있고, 5~9조는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를 나타낸다. 내용적으로는 『정전』의 ‘교리도’와 『정전』 제2 교의품에서 밝히고 있는 교리를 일상에서 곧바로 실천하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원불교의 ‘마음공부’는 대체로 일상수행의 요법을 근간으로 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러한 교리적 관계를 <표 1>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1> 일상수행의 요법의 교리적 구분
<Table 1> Doctrinal Division of the Essential Dharmas of Daily Practice

	일상수행의 요법	교리적 구분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마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써 자성의 정을 세우자	정신수양	삼학	진공묘유의 수행문 (교리도) /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 (양대요도)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마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써 자성의 혜를 세우자	사리연구		
3	심지는 원래 그림이 없건마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림을 없게 하는 것으로써 자성의 계를 세우자	작업취사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써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진행사조 사연사조	팔조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은	인과보응의 신앙문 (교리도)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자력양성	사요	/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 (양대요도)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지자분위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타자녀교육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공도자숭배		

Ⅲ. 원불교의 세계시민, 공도자(公道者)

1. 성자들의 마음, 공익심

1) 제불제성(諸佛諸聖)의 본의

소태산은 자신이 깨달아 알게 된 것이 ‘자신만의 고유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이는 깨달은 후 읽게 된 여러 경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는 유교의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소학』, 불교의 『금강경』, 『선요』, 『불교대전』, 『팔상록』, 선가의 『음부경』, 『옥추경』, 동학의 『동경대전』, 『가사』, 기독교의 『구약』, 『신약』과 같은 경전을 열람했다(Wonbulgyo Jeonghwas, 1977: 1041). 이렇게 경전을 참고한 후 그가 내뱉은 한 마디는 “나의 안 바는 옛 성인들이 또 한 먼저 알았도다”(Wonbulgyo Jeonghwas, 1977: 1041)였다.

유가에서는 이를 일러 태극(太極) 혹은 무극(無極)이라 하고, 선가에서는 이를 일러 자연 혹은 도라 하고, 불가에서는 이를 일러 청정 법신불이라 하였으나, 원리에 있어서는 모두 같은 바로서 비록 어떠한 방면 어떠한 길을 통한다 할지라도 최후 구경에 들어가서는 다 이 일원의 진리에 돌아가나니(Wonbulgyo Jeonghwasa, 1977: 111)

세계의 모든 종교도 그 근본되는 원리는 본래 하나이나, 교문을 별립하여 오랫동안 제도와 방편을 달리하여 온 만큼 교파들 사이에 서로 융통을 보지 못한 일이 없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다 모든 종교와 종파의 근본 원리를 알지 못하는 소치라 이 어찌 제불 제성의 본의시리오 (Wonbulgyo Jeonghwasa, 1977: 21-22).

깨달음을 얻은 성자의 안목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제불 제성의 본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겉으로는 서로 다르게 보이는 종교이자 가르침이지만, 모든 부처님[제불]과 모든 성자[제성]의 본의에서는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이는 교법의 총설에서 밝힌 것처럼, 성자들이 자신들의 가르침을 시대에 맞춰 세상에 적합하게 제시하다 보니 다른 모습을 띄게 된 것이다. 또한 옛 경전들은 오랜 세월 동안 부연과 주해가 더해져서 오거시서, 팔만장경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경전을 다 보는데 에너지를 소진하다가 ‘제불제성의 본의’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소태산은 ‘간단한 교리’와 ‘편리한 방법’으로 공부하고(Wonbulgyo Jeonghwasa, 1977: 156), 수많은 경전은 참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2) 공익심

제불제성의 본의는 어떤 마음일까? 이는 깨달음을 얻은 후 소태산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태산은 뜻을 함께 하는 동네 사람들과 1917년 ‘저축조합’을 창설하고 금주, 금연, 절약을 실천하여 상당한 돈을 모아 공부와 사업의 바탕을 마련했다(Wonbulgyo Jeonghwasa, 1977: 1048-1049). 그 후 1918년 3월에는 동네 앞 바닷물을 막는 간척지 공사를 시작해 1919년 3월에 2만 6천여 평의 논을 만들었다(Wonbulgyo Jeonghwasa, 1977: 1049-1050). 이러한 활동으로 가난한 동네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자립시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이끌었다.

소태산은 또한 저축조합의 조합원들과 함께 공부를 했다. 그래서 1918년 12월 원불교의 첫 교당인 ‘구간도실’을 만든 후에는 낮에 간척지 공사의 일을 하고 밤에 구간도실에서 공부를 했다(Wonbulgyo Jeonghwasa, 1977: 1051-1052). 그리고 간척지 공사를 마친 후 소태산은 함께 공부했던 제자들에게 이번에는 함께 기도하기를 청한다.

지금 물질 문명은 그 세력이 날로 융성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하여, 개인·가정·사회·국가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창생의 도탄이 장차 한이 없게 될지니,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어찌 이를 범연히 생각하고 있으리요. 옛 성현들도 창생을 위하여 지성으로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天意)를 감동시킨 일이 없지 않나니, 그대들도 이 때를 당하여 전일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 주기를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에 감동이 있게 하여 불지이다. 그대들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라 마음이 한 번 전일하여 조금도 사가 없게 되면 곧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 모든 일이 다 그 마음을 따라 성공이 될 것이니, 그대들은 각자의 마음에 능히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각자의 몸에 또한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라(Wonbulgyo Jeonghwasa, 1977: 101-101).

이렇게 제자들의 기도가 시작되었다. 소태산은 동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공부를 통해 마음을 밝혀주고, 동네라는 국한을 넘어 세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이끈 것이다. 일상수행의 요법의 9조에서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라고 말했는데, 소태산은 이를 직접 실천한 것이다. 이것은 분명 ‘공익심’의 실천이다. 또한 자신과 함께 한 제자들도 세상을 위한 마음을 내도록 이끌었으니, 제자들 역시 ‘공익심’을 실천한 것이다.

소태산은 [그림 1]의 교리도에서 네 다리 중 왼쪽 아래에 위치한 무아봉공을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려는 사상과 자유 방종하는 행동을 버리고, 오직 이타적 대승행으로써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데 성심 성의를 다 하자는 것”(Wonbulgyo Jeonghwasa, 1977: 52-53)으로 설명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기도를 권하며 “그대들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라 마음이 한 번 전일하여 조금도 사가 없게 되면 곧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 모든 일이 다 그 마음을 따라 성공이 될 것이니”라는 말씀은 무아봉공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

이를 종합해 보면 소태산은 사람들이 ‘공익심’을 키우고 ‘무아봉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끈 것이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옛 성현들도 창생을 위하여”라는 말씀을 통해 볼 때 과거의 성자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창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그러한지 몇 가지 실례를 찾아보도록 하자.

먼저 고조선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弘益人間)이다. 이는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 언급되었고(Jo, 2017: 103), 19세기 대종교(大宗教)의 홍암나철(1863-1916)에 의해 계승되었다(Park, 2012: 160).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으로도 반영되었다(Choi, 2017). 불교에서 불보살들의 서원(誓願) 역시 본질적으로 한 중생도 버리지 않고 모두를 구원하겠다는 서약이기에(Han, 2007) ‘창생을 위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다. 유교를 대표하는 공자는 수양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다고 보았는데(Lunyu 14:45) 이 역시 ‘창생을 위하는’ 평천하(平天下)의 마음이다.

이러한 예시를 볼 때 과거의 성자들은 ‘창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소태산의 언어로 바꾸어 보면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익심’이라 할 수 있다. 즉

과거의 성자들이 생김새도 다르고 때로는 제시하고 있는 사상도 다른 것 같지만,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한 마음’이 바로 ‘공익심’이고, 이를 원불교 교법의 총설에서는 ‘제불제성의 본의’라고 언급한 것이다. 즉 모든 부처님[제불]과 모든 성자[제성]는 그 본의에서 서로 다르지 않고 세상을 위하는 마음인 ‘공익심’으로 만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익심은 성자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Jo, 2019: 226-228).

2. 원만한 종교의 신자, 공도자

1) 공익심의 표준

일상에서 공익심의 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왜 어려울까? 바로 무엇이 공(公)이고 무엇이 사(私)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공(公)’은 어원적으로 ‘厶’에서 파생된 것인데 ‘厶’은 ‘私’의 원형으로 ‘제 자신의 몫’을 의미하고 ‘公’은 ‘厶’를 등진 것이라고 파악된다(Bae, 2013: 99). 이를 통해 공과 사는 기본적으로 대립적인 관계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실제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채택한 조선시대에는 수많은 ‘공’에 대한 담론이 있었고 이는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Lee, 2018). 원불교에서는 ‘지공무사’를 강조하는데, 『조선왕조실록』에도 백여 회 이상 등장한다.

대저 대사헌의 직무는 오직 지공무사(至公無私)한 자라야 담당하는 것인데, 경이 만약 조금이라도 공정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어찌하여 경의 사피를 허락하지 아니하겠는가?(*Sŏngjong sillok* 223:25a)

이덕숭이 성조(聖朝)의 지공무사(至公無私)한 정치를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사사로운 뜻으로 경망하게 억측[忖度]하고는 실상이 없는 일로 성상께 누(累)가 되는 말을 감히 발설하여 동료와 의논하였으니, 죄가 실로 중합니다(*Sŏngjong sillok* 287:5b).

형벌은 정치를 보조하는 도구이다. 성인(聖人)도 부득이 쓰기는 했지만, 반드시 지공무사(至公無私)하여 한결같이 공평한 마음에 의하여 하였다(*Hyojong sillok* 1:1a).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한 ‘지공무사’의 문맥에는 어떤 행위에 관해 ‘공’과 ‘사’를 구분한 후 ‘사’를 버리고 ‘공’을 택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는 원불교의 무시선(無時禪)의 강령에서 “육근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Wonbulgyo Jeonghwasa, 1977: 75)와도 일견 상통한다. 이런 점에서 공과 사를 구분하여 공을 취하고 사를 버리는 마음은 공익심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간단히 ‘공심(公心)’이라고도 부른다. 원불교에

서는 공심[공익심]에 관한 마음공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소아를 버리고 대아를 위해 바치는 마음으로서 부분 공심과 전체 공심으로 나눌 수 있다. 부분 공심이란 자기의 말은바 책임한계는 알뜰히 지켜 나가나 그 밖을 벗어나서는 오불관연(吾不關焉)하는 마음이다. 전체 공심은 이와 반대로 자기의 말은바 책임에도 충실할 뿐만 아니라 항상 전체를 위한 생각이 바탕하여 활동한다. 표준은 빙공영사(憑公營私), 선사후공(先私後公), 선공후사(先公後私), 지공무사(至公無私)인가를 살필 것이다(Chulga Gyohwadan, 2017: 10).

특히 ‘지공무사’는 원불교에서 공익심의 표준으로 자리하고 있다. 소태산은 일원상의 진리를 설명하며 “이 원상은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Wonbulgyo Jeonghwasa, 1977: 26), “일원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Wonbulgyo Jeonghwasa, 1977: 24) 등의 표현을 통해 ‘지공무사’가 마음의 중요한 속성임을 밝히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공익심은 세상을 위하는 성자들의 마음이고 성자들의 마음 표준은 지공무사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익심의 표준인 ‘지공무사’는 사대강령의 ‘무아봉공’과도 서로 통한다.

2) 세계를 이롭게 하는 ‘공도자’

어떻게 하면 공익심을 복돋을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일상수행의 요법 9조인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가 나온 교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소태산은 일상수행의 요법을 만들기 전에 먼저 <표 1>의 ‘교리적 구분’ 항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불교 교리를 체계화했다. 그리고 일상수행의 요법은 제목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원불교 교리를 일상에서 활용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따라서 일상수행의 요법 9조의 ‘공익심’은 내가 스스로 일상에서 실천하는 데 목적이 있고, 이러한 교리의 원형은 바로 ‘공도자 숭배’이다.

1. 공도자 숭배의 강령

세계에서 공도자 숭배를 극진히 하면 세계를 위하는 공도자가 많이 날 것이요, 국가에서 공도자 숭배를 극진히 하면 국가를 위하는 공도자가 많이 날 것이요, 사회나 종교계에서 공도자 숭배를 극진히 하면 사회나 종교를 위하는 공도자가 많이 날 것이니, 우리는 세계나 국가나 사회나 교단을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공헌한 사람들을 그 공적에 따라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도리로써 숭배하자는 것이며, 우리 각자도 그 공도 정신을 체받아서 공도를 위하여 활동하자는 것이니라 (Wonbulgyo Jeonghwasa, 1977: 44).

소태산은 세계에서 공도자 숭배를 극진히 하게 되면 세계를 위하는 공도자가 많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세계를 이롭게 하는 공도자를 숭배하는 것은 일상수행의 요법 9조 공익심의 핵심이 된다.

여기서 ‘송배’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혹 이를 ‘신이나 절대자를 송배하다’와 같은 의미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도자 송배’의 초기 명칭이 ‘공도헌신자 이부사지(公道獻身者以父事之)’였다는 점을 통해(Ko, 2012) 송배라는 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도리로써의 송배임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그러한 공도의 정신[공익심]을 체받아서 스스로가 공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송배임을 알 수 있다. 이를 간단히 말하면 공익심 없는 사람이 공도 정신을 체 받아서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송배라는 것이다. 즉 일상수행의 요법 9조를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공도자 송배’가 된다.

2021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에서 원불교 교정원 국제부장(사영인 교무)은 환영사로 “세계평화를 위해 그리고 인류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공익심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 빈곤, 핵무기 등 글로벌 위협들이 공익심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히며 “공익심의 회복은 세계평화로 가는 길”이고, “세계시민교육은 사람들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양성하는 교육”이라고 밝혔다(Kim eds., 2021: 5). 이처럼 무아봉공의 공익심을 실천하는 공도자 송배가 바로 원불교에서 제시하는 세계시민교육의 사상적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앞에서 ‘세계를 위하는 공도자’, ‘국가를 위하는 공도자’, ‘사회나 종교계를 위하는 공도자’로 구분한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공이라는 개념이 종교와 사회의 차원, 국가의 차원, 세계의 차원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한다. 원불교에서는 이를 ‘부분 공심’과 ‘전체 공심’으로 설명한다.

공심에는 부분공심과 전체공심이 있다. 부분공심이란 자기가 맡은 사회 단체의 책임 범위 내에서 아끼는 공익심을 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서 전체공심이란 세계나 교단 전체를 위해서 소아(小我)를 버리고 대아(大我)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공익심을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Wonbulgyo Beobmusil, 1994: 247).

이처럼 공을 위하는 마음이 전체 공심이 되지 못하고 혹 부분 공심에만 머물 때가 있다. 이때의 공도자 송배는 세계를 위하는 공도자가 아니라 자기 집단만을 위하는 공도자가 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점을 이해하기 위해 ‘지공무사’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경전인 『충경(忠經)』을 살펴보고자 하자.

<충>이란 것은 중정(中正)의 뜻이니, 지극히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는 것이다. 하늘은 사사로움 없이 사철을 돌아가게 하고, 땅은 사사로움 없이 만물을 생존케 하고 있으니, 사람도 사사로움이 없으면 크게 형통(亨通)하고 바르게 되는 것이다(Kim, 2006: 39).

한나라 마융(馬融)의 저술로 전해지는 『충경』은 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진 『효경』과 짝을 이루는 유교 경전에 해당한다. 다만 『충경』의 ‘충(忠)’은 경전의 권위를 빌려 지배계급의 권력 강화를 의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Woo, 2021: 39-42). 즉 공의 의미를 국가적 차원, 좀더 엄밀히 말하면 정치 이데올로기를 위한 공으로 한계를 지어 ‘부분 공심’에만 머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에 집중했는데, 세계시민의 차원에서 볼 때는 ‘전체 공심’이 될 때가 ‘공’이고, ‘부분 공심’에만 머물러 세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동네, 우리 지역, 우리 사회, 우리 국가만을 강조한다면 이는 ‘사’가 될 수 있다.

비슷한 경우로 종교는 그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 종교 교단의 구성원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구원과 제도의 대상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한다(Park, 2009: 94-95). 그렇지 못하면 ‘교단 전체를 위해서’라는 공익심이 ‘내가 믿는 종교’만을 위한 ‘부분 공심’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분 공심’으로 흐르는지를 스스로 성찰하고 전체 공심의 지공무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세계시민 의식은 ‘전체 공심’으로 세계를 이롭게 하는 공도자를 존경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공도자를 닮아가는 데 있다. 그리고 원불교 사상에서 볼 때 세계시민으로 성장해 가는 것은 일상수행의 요법 9조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본고에서 논의된 원불교 사상과 세계시민 교육과의 관계는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 원불교 사상에서 본 세계시민교육 개념들
<Table 2> The Concept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Won Buddhist Thought

세계시민교육의 개념들	원불교 사상으로 본 세계시민교육의 개념들	
세계시민	(세상을 위하는) 공도자	
세계시민의식	(세상을 위하는) 공익심	
세계시민교육	공도자 숭배	1. 공도자를 존중하고 2. 공익심을 본받아 공도자가 되어가는 것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IV. 결 론

세상이 변화함에 따라 세계시민교육은 교육계 전반의 화두가 되었다. 이렇게 바뀐 세상의 이면에는 과학문명의 발달이 있다. 소태산은 이러한 세상을 물질개벽으로 진단했고, 세상이 급속하게 바뀌는 이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여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실제 과

학의 힘이 만들어낸 지금의 시대적 환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계시민으로 거듭나야만 하도록 상황을 몰아가고 있다. 과학의 발달은 자의든, 타의든 세계시민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가 절실히 요청되는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세계시민이 되어간다는 것은 곧 ‘정신개벽’을 이뤄나가는 것이다. 소태산은 이러한 시대의 문제를 잘 극복하여 정신개벽을 이뤄나가길 염원했고, 이에 원불교 사상을 통해 ‘간단한 교리’와 ‘편리한 방법’을 제시했다. 이는 소태산과 제자들이 살아온 모습이기도 하고, 과거의 성자들이 살아왔던 모습이기도 하다. 이를 ‘제불제성의 본의’라 말할 수 있고, 세계를 위하는 마음인 ‘공익심’으로 살아가는 ‘공도자’에게서 ‘제불제성의 본의’를 찾아볼 수도 있다.

이를 정리하면 원불교적 세계시민 의식은 ‘공익심’에서 찾을 수 있고,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은 ‘공도자’가 되는 것이며, 세계시민교육은 ‘공도자 숭배’라 할 수 있다. 어느 종교를 믿든, 또는 어느 종교도 믿지 않더라도, 어떤 한 사람이 있어서 세계를 위하는 마음을 낸다면 바로 그 사람이 세계를 위하는 공도자이고, 성자들의 마음과 만나는 사람이고, ‘제불제성의 본의’를 실현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원불교가 지향하는 ‘원만한 종교의 신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References

[Primary Sources]

- 대산종사법어편수위원회 (2014). 대산종사법어. 익산: 원불교출판사. (Translated in English) Daesanjongsabeobeo Pyeonsuwuwonhoe (2014). *The Dharma Discourses of Cardinal Master Daesan*. Iksan: Won-Buddhism Publication.
- 원불교 법무실 (1994). 대산종법사법문집 제3집. 익산: 원불교출판사. (Translated in English) Wonbulgyo Beobmusil (1994). *The Dharma Words of The Head Dharma Master Daesan Vol. 3*. Iksan: Won Buddhism Publication.
- 원불교 정화사 (1977). 원불교전서. 익산: 원불교출판사. (Translated in English) Wonbulgyo Jeonghwasan (1977). *The Scriptures of Won Buddhism*. Iksan: Won-Buddhism Publication.
- 論語. *Lunyu*.
- 성종실록 (조선왕조실록). *Sǒngjong sillok* (Veritable records of King Sǒngjong). In *Choson Wangjo Sillok*.
- 효종실록 (조선왕조실록). *Hyojong sillok* (Veritable records of King Hyojong). In *Choson Wangjo Sillok*.

[Secondary Sources]

- Bae, B. S. (2013). Public and Private in Confucianism, *Journal of Eastern and Western Thought*, 14, 95-120.
- Baker, D. *Korean Spirituality*. 박소정 옮김 (2012). 한국인의 영성. 서울: 모시는사람들.
- Choi, M. H. (2017). The Ideal Characters of the Hongik in'ganbased Educational Thoughts and the Future Direction of Education in Korea. *The Journal of Gojoseon & Dangun Studies*, 37, 281-311.
- Han, T. S. (2007). A Wish in Buddhism. *Journal of the Pure Land Buddhism*, 10, 9-51.
- Jang, J. Y. (2015). The Three Types of Mind Diseases: Ignorance, Desire, Habitual Practice. *Won-Buddhist Thought & Religious Culture*, 64, 67-101.
- Jo, K. H. (2017). The Origin of Hongikingan in Dangun Myth and Its Meaning. *Korean Studies*, 40(3), 93-116.
- Jo, S. H. & Ko, S. Y. (2018). The Healing of Conflict and the Religious Education in Won-Buddhism.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57, 1-20.
- Ko, S. H. & Jang, J. Y. (2020). The Formation and Change of Dharma Meeting in Won-Buddhism.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ew Religions*, 43, 119-140.
- Ko, S. H. (2004). Historical Processes of Bulgyo Cheongjeon & its Characteristics. *Won-Buddhist Thought & Religious Culture*, 27, 117-150.
- Park, S. K. (2009). Study of the Situation of Religious Orders and Problems of Religious Centralism, *Won-Buddhist Thought & Religious Culture*, 43, 75-102.
- Ryu, S. T. (2018). A Study of Doctrinal Chart Centering on The Issues of The Process of Its Transition, *Won-Buddhist Thought & Religious Culture*, 75, 89-115.
- Woo, K. S. (2012). The Understand of Hyogyŏng and Chŭngkyŏng in the Late Joseon Dynasty. *Korean Studies*, 35(1), 35-57.
- 고시용 (2012). 원불교 교리 성립사. 파주: 한국학술정보. (Translated in English) Ko, S. Y. (2012). *History of the Formation of Won Buddhist Doctrine*. Paju: Korean Academic Information.
- 교정원 교화부 (2012). 예전집레집. 익산: 원불교출판사. (Translated in English) Kyojeongwon Kyohwabu (2012). *Guide to Conduct and Ceremony*. Iksan: Won Buddhism Publication.
- 김태우 편집 (2021). 2021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서울: 원불교 교정원 국제부. (Translated in English) Kim T. W. eds. (2021) *Interfaith Coalition Conference for Global Citizens 2021*. Seoul: Wonbulgyo Kyojeongwon Gukjebu.

- 김학주 (2006). *충경*. 서울: 명문당. (Translated in English) Kim. H. J. (2006). *Zhong Jing*. Seoul: Myeongmundang.
- 박광수 (2012). *한국신종교의 사상과 종교문화*. 서울: 집문당. (Translated in English) Park. K. S. (2012). *Thoughts and Religious Culture of New Religions in Korea*. Seoul: Jibmundang.
- 이근호 (2018), 『공, 천하의 기준이 되다』, 파주: 글항아리. (Translated in English) Lee, K. H. (2018). *Gong (公) Becomes the Standard of the World*. Paju: Geulhangari.
- 조성훈 (2019). “마음공부와 공익심”. 오용석 외. *덕목별 마음도야론1*. 고양: 공동체. (Translated in English) Jo, S. H. (2019). *Mindful Practice and Public Spirit*. Oh, Y. S. et al.. *The Theory of Mind Cultivation according to Virtues, Vol. 1*. Goyang: Gongdongchae.
- 출가교화단 (2017). *신분검사 안내서*. 익산: 수위단회사무처. (Translated in English) Chulga Gyohwadan (2017). *Self-Check Guide for Personal Study*. Iksan: Suwidanhoe Samucheo.